

웃쳐도 할수업소리니 생각하라 전도인이 날  
이 점으는 거슬 보고 당직이로더 브러 작별하  
고 가니라

묘축문답권지상종

묘축문답

십말

묘축문답하전

잇흔날 전도인이 다시 신앙에 드러가니 당직  
이 영접하여 인스름 못춘후에 세상니야기를  
하더니 전도인이 왈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의  
보살 섬기는 거시 좃도 가아님을 말하엿더니  
싱각하야 보견티 좃도 1니 잇가 당직이 곧  
티그티말이 보살이거 좃거시라 곱을내가 아  
니 밋는 거시하나라다 만흔가지의 심이 잇스  
니 사람의 전하는 말이 신안고 울적 만이라하  
는 씨에 현후마노라 가 잇서 미우령험하야 미  
양기 록 곱을나라내며 빙성을 구원하느니라

간혹리가 그곳을 저알적에 도희 돈을 스르고  
종을 울리며 처형하던 누구던지 덩녕적수와  
스망이 잇다 하니 보살이 만약 거짓거실진티  
엇지 이러할령험이 잇는뇨 천도인이 곧 오티  
무수한 허량적이 흥상적만디 정에서 비성의  
비를 겁측하고 적물씩아 숨을 심각지 못하는  
다그마노라가 진실노령험이 잇스면 엿지이  
린세에 신묘한 징조를 때프러그 비성을 구제  
치안노고 그 목전에 잇는 환란을 구제치 못하  
거든 흥들며 바다 빛과 비성도 해주기 될 엿지  
보라 리요 또 환적만련 후 쇠치 성하니 환사름

묘축문삼

십삼구

도죄물을 엿는이가 단코적만련 후 쇠치 성한  
자도 환란을 만히 맛나니 그 보응함이 엿지이  
又 처령험이 업는노 때 더련 후는 신과 성인이  
아니나 다만 죽은 사름이니 더의 죽음을 면치  
못하거든 엿지 사름의 죽는거 살구하며 대가  
성전에 더의 몸을 보전치 못하거든 엿지 스 후  
에 만민을 보전하리요 세상에 흥망 성쇠와 길  
흉화복이 모두 상대의 극히 공법되고 스정  
이 업스신 상벌이니 진실노련 후자 행치 못할  
바이니라 당적이 올련 후는 황제의 책지로 봉  
홍심을 밧아 보살이 되엿는나다

전도인이 활련 후가 임의 황대의 칙봉을 심을  
밧았시면 엇지 황대의 락하를 보호하야 나라  
이대 평호며 비성이 편안케 못호는 노실 노은  
례를 비반호요 덕을 니 접이 오도 관칙지를 노  
려 베풀을 봉호는 이는 덩녕 봉함을 밧는 이 보  
다 더 높을 기시니 황대가 칙봉함을 밧아 보살  
이 되엿다 활련이 면 황대가 권능으로 능히 비  
성의 명이 길고 자른 것과 가난호고 부흥과 중  
호고 달함을 뜻티로 못호거 불호물며 황대 쇠  
봉함을 밧은 보살이 엇지 회복을 뜻티로 호려  
요 겁히 생각하야 보시오 당직이 활이 말파  
又

모충문답

이십

활련티련 후 보살도 거 좃거시로 다 전도인이  
알파연 그러호니라 당직이 활상에도 섬기고  
보살도 섬기면 엇더호 노골으티 올치하니 호  
나라 세상사롭이 상대를 비반호고 우상을 섬  
기는 거서 조과 인군을 비반호고 도적나라를  
섬기는 것과 조흔지라 이제 우상을 버리고 상  
대를 공경호면 이는 반호는 도적을 버리고 구  
주를 좃는 모양이니 활 비성이 엇지 두 인군을  
섬기리요 때 더 좃도 화거 좃도가 서로 조지하  
니 호야 여거서 나오매 더리로 드리가고 이리  
로 드리오매 더거서 나오느니라

당직이 곧은 티진실노이와 갓흐면나도상대  
를섬기고저흐노라전도인이왈상대를섬기  
라하면반드시몬져에수씨를밧느니대다상  
대죄셔착훈기슬스랑흐시고악훈기슬위위  
흐샤죄인으로도더브러서로통호지하니시는  
고로죄인이감히상대죄갓가이지못흐느  
니비유컨티나라법을범훈신하가감히넘금  
죄드러가죄음지못훈과갓훈지라세상사름  
이다상대죄죄를엇이죄가중간에담을싸하  
시로통훈수가업스메구쥬씨수죄셔만민의  
중간보인이되샤보비피를홀너사름의죄를

구속호시고막힌담을통호야만민으로호여  
곰상대죄화친호게호시고상대를섬기게호  
섯느니라

당직이왈에수는엇더훈사름인고곧은티상  
대의아들넘이서니라당직이곧은티엇지호  
야에수이라호느뇨곧은티에수라훈은셔양  
본국말이니진셔글조로쓰고조선말노부르  
면야소이니본리인간을구원호시는인군이  
라진셔글조로번역호면곳구세쥬이니하늘  
을씨나씨에느려오샤인간을구원호신고로  
에수이라닐코느니라

당직이알에수가상대의아들이면하는님도  
아들이잇는냐전도자1알에수는상대로더  
브리몸도又고성품도又고견능도又호사상  
대죄로조차나신고로상대의아들이라닐  
니이논인간의아비와아들이서로하는말  
을빌어사름으로하여곰상대죄로조차오신  
줄을알게함심이니라당직이알에수1엇더  
할사름을구원하는요골은티성정에닐너스  
되모든세상사름이상대죄를스스로항복  
할다함엇스니하늘파셔이열닌뒤로브러마  
즈막날에니르도록만국사름이런조로빅성  
묘축관답

이집이

사자상대압희셔는모도다죄가잇는지라구  
쥬에수씩셔하늘노조차인간에는려오사련  
하죄인을구원하시느니라당직이알세상사  
름중에죄업는사름이업스리요골은티성정  
에닐너스되죄업는자1업다함엇스니인간  
사름들이날마다상대의은혜를닛저버리고  
집계를범하여상대가죄한신아바지신줄을  
모르고스랑치아니함며상대가큰전능한신  
쥬지신줄을모르고공정치아니함니그죄엇  
지죄다함리요에수1만일인간에는려오사  
죄를속량하고사름을구원하시지아니함섯

더면 사람이 스스로 몸을 구원하려 가엾스리  
라 당직이 왈 넷말에 날 너스되 허물을 능히 곳  
치면 착함이 그에게서 더 큼이 업다 하였스니 만  
일 허물을 곳치고 착함으로 옳기면 죄가 업을  
거시어 늘었지 반드시 예수속죄함을 기드  
리리요 전도인이 왈 허물을 곳치는 거슨 다만  
전날의 지은 허물을 누우치 압희오는 죄를 조  
심할 뿐이요 전의 지은 죄는 능히 업시 하지 못  
하느니라

당직이 왈 사람이 만일 덕을 다고 선을 행하면  
전일의 지은 죄악이 즘연 업시 질러이니 엇지

예수의 공로를 기드려 속죄하려 요전도인이  
왈 성서에 날 너스되 너의 계명하신 대로 낮  
치 행하여도 맛당히 스스로 날으기를 무익한  
종이라 하였스니 이는 다만 더의 당연한  
본분으로 행함이라 가령 한 사람이 일직도 직  
질파 사람을 죽이기와 간음을 무수히 행하다가  
나중에 회개하여 충성하며 효도하고 착한 사  
람이 되었스니 눈압해 보는 거스로 말하면 나  
라법을 범한 거슨 업스나 다만 조과의 맛당할  
직분인 고로 열췌에 었던 사람이 사람의 전날  
죄악을 법관의 게고하면 관원이 반드시 그 사



를을잡아법정에서형벌하야다스리매반드  
시속을밧쳐야노일거시요속밧칠거시업스  
면법티로형벌을다하리니상대씩셔사름의  
죄를다스리심이이화又한지라때더사름이  
상대와기르시는큰은혜를밧은즉상대의물  
법을준행함이사름의본분이라기시본분일  
진티행하는거시격식밧기착한일이아니요  
임의격식밧기착한일이아니면엇지전날지  
은죄악을씨셔브리리요사름이성전에착한  
일만행하다가혹한범죄를지여도형벌을밧  
올티이여문하물며사름이일심에착한일은  
코추문남

부족하고악한일은유여하니조기죄를도망  
하기어렵고런벌을면할수업는줄을란식할  
세에한친구가티신하야가셔죄를담당하섯  
시면이又한은혜와공덕을엇자감할소냐그  
러하나상대의를법을밧하섯시면친구가능  
히속할수업는니충신과효조도조기힘으로  
씨님금과아비를속량하지못하고소랑하는  
친구라도티신하야속하지못할거시여늘에  
수—몸을브려세상죄인을구속하섯스니그  
높으신공덕과근절히사랑하시는마음이한  
량업는지라맛당이에수를밧고의탁하야죄

물과 향야 주시기를 보랄지니 만일 구주 예수  
물의 락 향지 아니면 이는 비유컨터 어린으리  
가 구덩이에 빠져 지매 붓드러 내여 주는 사람이  
업슴과 같지라 능히 더의 힘으로 구원할수  
가업느니 또 환반신불슈와 죽은시태가즈기  
를 구원할수가 엇지 잇스리요 무릇 인간사름  
이 죄를 범 향야 영원한 디옥 형벌을 받는거시  
구덩이에 빠져 진어 린으리가 명이 조석에 잇슴  
又 또 고졸세상 사름이즈기 착한 공덕을 밋어  
상대 형벌을 면 향라 흠이 구덩이에 빠져 진으리  
가 더의 힘으로 능히 구원할출을 밋음과 같  
호

며 보살과 우상울의 락 향여 상대의 형벌을 면  
향라 향는 것도 구덩이에 빠져 진으리가 반신불  
슈와 죽은 사름의게 구원 향기를 청함과 같  
니라

당직이 왈 예수는 무슴 공덕으로 사름을 속 호  
야 피에 면 향게 향노전 도인이 왈 예수는 하늘  
노보러 인간에 내려 오샤 사름이 되샤 무수한  
고성을 밋으시고 세상 사름을 티신 향야 십조  
가에 보비 괴를 풀너샤 죄를 속 호섯느니라 당  
직이 왈 예수 | 상대의 아물이 어늘 엇지 향야  
허다 할고성을 밋으섯느노를으티 사름이 상



데 죄를 범할 때 맛당이 고성을 밧을 거시여  
늘 상에 즘비 할 신은 덕으로 예수를 인간에 보  
내야 고성을 터신 할야 밧게 할 것스니라 당직  
이 할 예수ㅣ 임의 허다 할고 초를 밧아 시면 엇  
지 또 험집 즘가에 못 박혀 죽엇스니 노골으 터사  
름이 상 데 죄를 범 할 것스니 맛당이 영원히  
죽는 형벌을 밧을 거시여 늘 예수ㅣ 사람을 스  
랑 할 시는 고로 즘 괴 몸을 버려 죽으야 사람의  
죄과를 터 속 할 것스니 그 은혜와 공 덕이 텨디  
와 또 처 늙고 크신 지라 나와 자씨 도 예수의  
공로를 밧지 아니 할 것다 못 할리라 당직이 할

예수ㅣ 죽으시매 무슴 공로를 그 터와 내가 밧  
엇다 할스니 노골으 터 예수ㅣ 십 즘가에 못 박혀  
고성을 밧으야 우리의 죄를 터신 할 심이니라  
당직이 할 내가 법을 범 할 지 아니 할 것스니 무  
슴 죄가 잇다 할리요 전도인이 할 당신이 비록  
나라 법은 범치 아니 할 것스나 반드시 상 데의  
률 법은 범 할 것스리이다 노골으 터 내 일심에 간  
음과 도적질과 사름을 상 할고 물건을 해 할 거  
시 업스즉 무슴 상 데의 른 법을 범 할 것스리요  
전도인이 할 당신이 반드시 나라 법을 범 할 것은  
알려니와 상 데의 법을 범 할 것은 세 뜻지 못 할리

니 비유컨디 여두온방에 서방안정결치아나  
흠을아지못함과 혼지라 예수 1 간에 너  
오차하늘나라복음을전파하차사름의죄악  
을회개하게하시며 음도를 무르쳐보이심이  
히가어두온집에 빛치음과 고사름으로 하여  
곰이두온거슬브리고 밝은티로 나가게 하  
심이니 당신이 룰법을 삼혀 보면 당신의 마음  
과 심각과 말씀과 형실이 상대의 룰법을 범한  
거슬 명백히 알나이다

당직히 알상대를 룰법이 무어 서요 곧은 티 상대  
룰법이 쉽게 가잇스니 첫제는 상대 맞기 또다  
요추문답

이십칠

른 상대가 잇다 하지 말나 하고 들제는 모든 우  
상을 섬기지 말고 셋제는 상대의 돕흔 일을 흠을  
임의로 부르지 말고 넷제는 안식일을 직히라  
하고 다섯제는 부모의 계효성하고 여섯제는  
사름을 죽이지 말고 일곱제는 음란하지 말고  
여덟제는 사름을 죽이지 말고 아홉제는 망녕  
되지 증거 말고 열제는 탐하지 말나 하였스니  
이 열가지가 상대의 룰법이니 조세히 심각하  
야 보시오 혼가지도 범한 죄가 업는 잇가 당직  
히 알내 심계를 온전하는 범하지 아니 하였노  
라 전도인이 알성정에 날 너스되 만일 혼법을

범행면십계를다범함이라하였스니함몰며  
우리세상사람의하는것과말과행실이하나  
도상대의법을범하지아니하였시리오당직  
이알엇지하여야그러하뇨전도인이알세상사  
람의상대법을범하는거슬때강말씀함오리  
이다세상사람이무음에악한심각을잡초하  
님의부녀를욕심두고놈을투기하고위위함  
며교만하고간사하며원슈잡기와놈을해함  
고몸을러함게하며인척함고거짓확한태함  
는거시다무음속으로상대의법을범한죄요  
상대의일함을당닝되이닐크르며사람을속

이며뻬방하며욕하며헛됨세하며음란한말  
을함며거짓말함는거시어는무음으로상대  
의법을범함는죄요잡술과외도를충상함야  
붓쳐와우상을심기며죽은사람의신주와무  
덤에절하며부모의저를효하며님군의계충  
성치아니하며술과계집과잡기를도와함며  
도적질하며싸움하며아편을끌고먹는거시  
이는행함으로상대의법을범함는죄니라  
당직이알이거시다상대의법을범함는거시  
면우리는다죄잇는사람이어니와그덕의말  
이신주와무덤에절함는거시또한죄라함니

내의 생각은 그릿치 아니 하도다 공조의 말씀  
이 살아서 는 레로 함 기고 죽어서 는 레로 장스  
하 고 제 스 는 레로 함 라 함 섯 스 니 효도가 비 힘  
외 웃듬이 되 매 조 상 을 섬 기 는 거 시 효 의 레 절  
이 어 늘 었 지 도 로 허 죄 라 함 는 노 전 도 인 이 왈  
진 주 와 분 묘 에 절 함 는 거 시 진 실 노 불 효 가 되  
는 지 라 큰 폐 단 인 니 가 지 헛 스 니 첫 제 는 의 스  
업 는 일 이 요 들 제 는 무 의 환 일 이 요 섯 제 는 효  
도 의 지 극 관 빙 거 가 업 고 넷 제 는 상 데 씩 죄 를  
짓 는 거 시 라 내 당 신 을 위 함 여 시 힘 으 로 말 함  
리 다 종 조 일 곧 으 샤 티 부모 외 무덤 에 소 와 양

요 죽 문 답

이 십 구

을 잡 아 제 스 함 는 거 시 성 전 에 비 름 과 아 옥 으  
로 봉 양 함 는 이 만 못 함 다 함 섯 스 니 이 뜻 술 분  
명 이 성 전 에 봉 양 할 거 시 오 스 후 에 제 스 할 거  
시 아 니 라 곱 이 오 또 관 제 물 이 공 비 함 야 도 부  
모 가 환 가 지 도 흠 향 치 아 니 함 는 니 이 는 다 름  
아 니 라 죽 은 사 름 은 세 상 량 식 을 먹 지 아 니 함  
이 니 이 런 고 로 의 스 업 는 일 이 라 함 이 오 또 관  
조 상 을 비 브 르 게 함 고 저 함 여 도 그 리 못 함 고  
조 상 의 게 제 스 함 여 복 을 빌 고 저 함 여 도 그 리  
못 함 고 또 진 턴 물 망 함 는 고 로 무 의 환 일 이 라  
함 이 요 또 환 무덤 에 제 스 함 은 부모 의 게 효 도

흠이 아니요 무덤을 옮겨 장사 하야 부모의 위  
골을 옮기는 것은 조부 골구 골이요 제물을  
공비 하게 갖 초아 제스 흠은 효조 - 라 하느 일  
흠을 구 흠이요 또 흠 조손이 유여 할세에 는 제  
스를 공비 하지 내 고 가 난 할세에 는 몸만 가서  
성묘 하느 니 이 又 흠 즉 제스 하느 레 법이 효도  
에 유조 흠이 업고 현상 텨 하에 상에 관 분을 맛  
탕이 절 하고 섬길 거 시 니 성스 와 화복의 권이  
다 상에 쇠 잇거 늘 당 신은 상에 의 권 능으로 써  
망녕 되 이 조상의 계 들 녀 보 내 여 산 소와 신쥬  
에 절 하야 상에 쇠 죄 를 조 청 하 니 일노 성 각 하

먼 제스 지 내 는 레 절이 일 호 도 유 의 흠이 업는  
지라 그러 하 나 임 의 보 살은 거 좃 거 신 줄을 알  
고 엿 지 제스 하느 레 법은 거 좃 신 줄을 모 르느  
노 상에 의 료 법을 범 하느 여 러 도 건을 말 습 하  
엿스 즉 당 신 성 각 에 는 이 런 일을 범 흠이 업느  
니 잇 가 당 직이 알 그러 하 면 나 는 큰 죄 인이 로  
다 전 인이 알 당 신이 임 의 스 스 로 죄 됨을 알 진  
배 맛 당이 에 수 료 의 락 하야 디 옥 의 영 원 할 형  
벌을 면 하 게 하 시 오 그러 치 아 니 면 죽 기 에 림  
하야 서 는 후 회 막 급 이 되 리 라 당 직이 알 성 각  
건 티 에 수 쇠 서 우리 又 치 보 고 천 환 사 림을 구

제쳐아닐가 두려호노라 전도인이 왈 예수  
말씀호샤 티고싱호고 무거온 짐을 진 사람은  
나의게 오라 너의 물평안호게 호야 주리라  
호섯스니 예수는 만민의 구유시 메 무론 귀  
천호고 이는 곳 사람이던지 진실노 죄를 회개  
호고 의탁호면 비록 죄가 산갓치 높고 물갓치  
깊혀도 낫낫치 서브리지 못함이 업스리니  
구유의 속죄호시는 믿음은 편벽됨이 업스진  
지라 아자씨는 예수의 큰 공로를 힘입어 죄를  
속호고령 혼을 구호야 미지안는 믿음은 품지  
말기를 브라노라 당직이 왈 예수를 믿고 힘입

음이 무삼방척이잇는 노 전도인이 왈 성경에  
닐너스되 밋고 세례를 받은자는 구제 혼을 넘  
리라 호엿는 니라 당직이 왈 세례는 무엇시 노  
전도인이 왈 세례는 예수를 믿어 좃고 처음으  
로 교문에 드리 정도를 행호는 결초라 예수  
그대즈를 명호샤 온천하에 복음을 전호고 밋  
는자는 세례를 주어 사름으로 호여 품상대씩  
죄를 사호고 영생을 주시는 은총을 넘제호고  
즈기 일함을 밋고 명을 조차 세례를 받은자는  
죄를 사호고령 혼을 구원호리라 호섯는 니라  
당직이 곶으티 그리호후에는 무슨 일을 호는



노전도인이 왈 세례 받은 후에 는 말과 형실을  
반드시예 수도를 조차 굿이 락되 고상대 와 예  
수를 공경 하 고 사랑 하며 인군의 계충성 하 고  
부모의 계 효도 하야 본분을 직히며 사람을 사랑  
하기를 몸과 죽이 하야 장리 영원한 복록을 구  
할 거시요 만일이 도를 행치 아니 하 고 부조성  
신의 일홈을 공경치 아니 관측 죄가 더옥 중 하  
리니 전날의 죄과를 회기 하 고 참도를 준행함  
이 맛당 하니 이 다만 일지금 회기치 아니 하면  
사람의 오래 살 고 쉬 죽는 거슬 알지 못 하 매 이  
후에 누우 쳐도 할 수 업 스리 이 다 당직이 왈 그

티의 말과 죽이 밧드 리 행 하 리 이 다 전도인이  
왈 나의 말이 금석 죽이 당연한 말이 니 명심 불  
망 하 시 오 하 고 전도인이 작별 하 고 가 니 라 이

요축문답 발문

척은 서양에 수교 전도인이 중국 잇슬 때에  
중국 신도 위하 는 사람과 문답한 척이니 중  
국 글 노 문 든 척을 조선 사람이 조선 글 노 문  
역한 거시 라 그 글 이 비록 예 수 교 의 오 묘 한  
뜻 손 하니 나 부인 너 조 라 도 알 기 가 힘 고 또  
관 이 도 가 로마 교 와 죽이 예 수 화 상 을 위 하  
고 십 조 피 를 차 는 절 초 가 업 는 거슬 불 히 알

지라 때 더 상 데 의 거 룩 할 도 는 예 수 의 교 1  
라 로마 교 도 할 근 본 이 여 늘 었 지 상 데 의 명  
령 을 기 스 러 위 꾀 와 화 상 을 위 하 는 고 때 더  
이 칙 의 말 할 것 과 又 처 련 상 련 하 와 기 벽 전  
후 로 지 극 히 높 고 지 극 히 크 심 이 하 는 님 할  
분 썬 이 여 늘 슬 프 다 사 름 들 이 지 각 이 업 서  
썬 티 업 는 우 상 을 위 하 니 상 데 었 지 진 노 하  
지 아 니 시 리 요 또 할 하 늘 을 위 하 는 거 술 보  
면 단 을 모 고 제 스 하 는 물 건 을 드 리 니 이 는  
도 로 허 상 데 를 공 정 처 아 니 함 이 라 상 데 썬  
무 슴 물 건 이 부 족 하 야 드 리 는 제 물 을 흠 향

하 시 리 요 성 정 에 날 너 스 되 맛 당 이 모 음 과  
썬 과 정 성 을 다 하 야 너 를 맛 혼 신 을 섬 기 라  
하 였 스 니 나 를 맛 혼 이 는 하 는 님 이 시 니 모  
음 과 썬 과 정 성 이 곳 제 스 하 는 물 건 이 라 그  
다 하 고 극 진 이 하 는 법 은 하 는 님 의 도 를 좃  
고 예 수 를 밋 는 거 시 니 이 말 이 성 정 에 다 있  
는 고 로 다 시 장 황 이 론 난 하 지 안 커 니 와 이  
칙 의 문 답 이 등 방 모 든 나 라 공 속 병 통 에 적  
당 할 고 로 이 에 초 선 언 문 으 로 번 역 하 노 라  
때 더 국 중 일 본 에 도 허 망 할 일 이 만 커 니 와  
우 리 나 라 이 더 욱 심 하 야 섬 기 는 우 상 이 무

수할지라 나라집으로 말하면 풍요사직문  
묘외에 또 환판대성황토디지신이며 스스  
집으로 말하면 조상외에 부처와 보살  
파산신과 룡신과 로인성과 철성과 데석과  
조왕을 섬길 뿐이 아니라 나무와 돌에도 위  
하며 비암과 독겁이와 죽저비를 업이라 하  
야 위하고 처성하느니라 그러므로 무당과 관  
슈가 세상을 미혹하고 박성을 속여 돈과 지  
물을 빼앗아 서가니 일년에 쓰는 거시 절반은  
이거스로 허비하는지라 상대엇지 그포진  
편물함을 위하하지 아니하리오 또 환삼

신이 사름을 도와서 심산하게 한다 하느니 이  
는 더욱 상대의 일움을 공정치 아니함이요  
하늘아바니 큰 은혜를 비반함이요 으히 들  
이역질할새에는 역질귀신이 잇다 하야 미  
일치성하고 약을 쓰지 아니하야 열의아함  
을 죽이니 아지 못거라 종두는 사름이 역신  
을 청하야 오는 거시냐 이 또한 무식한 일을  
행하야 상대의 명령을 범하고 인명을 상하  
니 그 죄가 엇지 중하지 아니리요 과연 한심  
하고 민망하고 다우리나라 사름들 도귀로  
듯고 눈으로 보거나 와 부쳐 보살과 판공을

비방하고 다만 상대만 섬기는 처양 각국은  
현하에 나라이 부하고 비성이 강하니 엇지  
교주 고슬 노본국 풍속만 준행하는 노셔양  
사름은 학문업고 경험업서 분명치 아니 할  
일을 행치 아니 하니 오브라 건대 조세히 강  
구하고 김히 생각하야 상대를 공경하고 예  
수를 밋어 영원할 복을 예비하야 라 무지 할  
사름의 말이 로마교하는 사름은 사름의 눈  
을 세어 약으로 먹어 환장이 되고 그 칙을 보  
면 요술을 행할 다 하니 비록 로마교가 그리  
시도 교와 다르나 그런 일을 행하면 이 귀화

할 세상에 용납하지요 예수교 칙은 구약과  
신약이라 이는 곳 성경이니 다른 비결과 진  
언은 같거지 아니요 대 확지도 같지라 때  
더이 번역할 칙을 인하야 성경을 보고 믿음  
을 들너 도를 향하는 사름이 만하면 번역한  
사름의 성광도 적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대  
씩 들너 보내리니 천만 번 브라는 니다  
아멘

주강성일천팔백구십오년  
대조선기국오백사년을미  
경성정동비지학당간인